

예수님과 베드로

핵심 구절: “예수께서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상심하였다. 그는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17

선별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21:15-19

본문의 핵심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세 번째로 듣는 순간, 베드로의 기억은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장면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6:69-75).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듯이, 이제 주님께서도 세 번에 걸쳐 그에게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스승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추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던진 이 세 번의 질문은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도 더 이상의 책망 없이 그를 용서하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주님은 세 번의 부인에 대해 꾸짖지 않으시고, 오직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의 깊이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베드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책망할 때는 직접적인 비난보다 암시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매우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들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어업 사업을 더 사랑하고 섬기려는 성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목적도 수행했다.

주님께서 처음 두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사용된 그리스어 "아가파오(agapao)"는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이나 보상에 상관없이 이기심 없이 희생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phileo)'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적 사랑, 형제적 애정, 우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슬퍼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형제적 사랑과 애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아직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인 '아가파오'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특성 중 하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가 지적되자마자 그는 재빨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주님과 자신 사이에 회개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어떤 구름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순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따지기보다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 요청하신 것은, 이제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가 아닌 주님의 양 떼를 돌보는 일임을 강조하신 것이다(요한복음 21:15-17).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전에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상기시키셨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충성스럽고 열정적임을 아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마태복음 4:19).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하며 주님의 양들을 소홀히 했다면, 그의 행동은 자신의 대답과 모순되었을 것이다. 이는 말로는 사랑이 있었으나, 행동과 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이 경험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속적인 목표와 야망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양들, 즉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의 필요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베드로전서 4:10,11